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하기는 하나”

국가균형발전위, 청와대 보고 후 7개월 넘게 제자리 제주도, 우선 유치대상 12곳 선정... 계획은 차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제주도의 공공기관 유치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와 추가(2차) 이전 공공기관의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는 4월 총선 직후 지역과 협의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말까지 지방이전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 의지를 표명하자 제주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안을 완료하고, 제주연구원 용역을 통해 유치 적합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제주연구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2곳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꼽았다. 이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연간 지역내 생산은 1996억원, 부가가치 1124억원, 취업자 2683명 등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보고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지방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

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은 300여곳이 넘는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표했고 2007년부터 지난 2019년 해 말까지 153곳을 이전했다. 제주도 혁신도시에는 현재 8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난해 정치권 논의 후 정부차원에서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TF팀 구성안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을 준비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지난 5일 오전 제주공항에 공군 C-130 수송기가 도착해 적재칸에 실려 있던 AZ백신 운반트럭에 대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 의료진·종사자 백신 접종 시작

AZ 백신 공군 수송기로 도착 화이자 백신 15일쯤 도착 예정

제주지역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 등이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4800도스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백신 수송에 군 비행기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에 도착한 1차 접종분은 뱃길을 통해서 왔다.

군은 이날 AZ백신 4800도스를 트럭 5대에 실어 제주에 보냈다. 이어 백신은 해병대 9여단과 경찰의 경비 아래 고위험의료기관인 도내 12곳 병원을 포함해 코로나19 1차 대응 인력이 있는 보건소 등으로 전달됐다. 백신을 받은 각 병원과 보건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자체 접종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도 항공수송 임무를 지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김현수 준장은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부대가 국민의 군으로서 가치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향후 제주를 포함해 도서지역에 백신 긴급 수송이 필요할 경우 국방부와 협의해 항공 수송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전담 의료기관 의료진 등이 접종할 화이자 백신은 오는 15일쯤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제주도 한라체육관 예방접종센터를 포함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나누어 배송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안전한 관광제주 ‘은 힘’ 민·관 합동 점검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현장에 대한 지속 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연장 시행으로 3월 중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전한 관광제주’를 지켜내기 위함이다.

도는 행정시와 관광협회 및 공사 등 민·관 합동의 요일별 기관담당 점검반을 구축해 방역 현장을 점검한다. 또 관광사업체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체별 자율방역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업체 당 100만원 이내 방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는 방역 점검 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관광사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 사업으로 156억원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관광진흥기금 특별용자지원을 신청받고 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제주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다양하고 실속 있는 현장의 소리를 공유하겠다”며 “행정과 관광사업체가 하나가 되어 제주관광산업의 조기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평화인권대학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4·3 전문가 양성을” 전문대학 대학원 설립 특례



개정안은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줬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근 4·3희생자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 의원은 “4·3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걸음에 발맞춰 평화 인권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평화인권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관광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부미협기자 bu835@ihalla.com

제주에 평화인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사진)은 7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제주도 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용면접 시 자녀계획 등 질문금지” 추진

위성곤,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채용 부정적 영향 사전 방지”



이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상당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동거인 유무, 자녀유무, 자녀계획 등을 묻는 것은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이라며 “이러한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협기자

채용과정에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의 질문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사진)은 7일 채용면접 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 채용에 불리한 질문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 특

“관광약자 접근성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관광약자들의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사실 관광지에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1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시설관광지·숙박업, 음식점 등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공고·접수를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600만원(자

부담 30%) 이내다.

지원 사항은 장애인화장실, 계단 핸드레일, 점자블록, 수유시설 등 시설부분과 휠체어, 유모차, 자동심장충격기 등이다.

또 제주도는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무장애관광 브랜드 ‘같이가기 제주여행’을 활성화하며, 수어해설영상 제작·배포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내 주요 관광지 수어해설 영상 제작 및 QR코드 배포가 진행된다.

강다혜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안내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추가 접수하오니, 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장

1 신고 기간 2021. 1. 1. ~ 2021. 6. 30. (6개월간)

2 신고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제주도민회, 재외공관(미,일)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현주소지 또는 4·3사건 당시 거주지의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 타시,도 거주 재외도민 :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3지원과 우편신고
○ 외국 거주 재외도민 : 재외공관(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우편 신고
※우편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우)63122

3 신고 대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47. 3. 1을 기점으로 '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
○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1명

4 신고 자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5 신고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타시도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대한민국민단), 재외공관에 비치된 신고서를 교부 받아 신고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신고미감찰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고서에 첨부할 증명서류

① 희생자 신고 :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② 유족 신고 : 유족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③ 후유장애자 신고 : 국립중앙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④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제출
-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친족 2인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 외국거주자로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2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문의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044-205-6564, 6562,6563)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34, 8435, 8436)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5),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4) 제주도내 읍면동 4·3업무담당